

JPIC 양성:

## 사랑의 두 다리로 걸기 운동

(Carolyn D. Townes, OFS, JPIC 촉진위원 씀)

인간사회 안에는 정의감과 자애심이 늘 존재하고 있으며, 이 둘은, 어느 형태로든지, 제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주장에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정의의 “” 등등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그 중에도 무엇보다, 사회문제의 구조적 측면과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 교회 사회현장의 요약.

미조리주 샌 루이스에서 열린 2018년도 국가 선거총회는 참석자들을 위하여 창조형성의 정의, 평화, 성실성에 관한 멋진 제안이 준비 되어 있었다. 양성시간에 내가 내놓은 의견은 사랑의 두 발로 걸기에 대하여 였다. 이 사랑의 두 발이란 자비의 발과 사회정의의 발을 말한다. 가끔 우리는 한 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다른 발에 대하여는 잊고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올바르게 걷고 있다면, 아니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서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두 발로가 아니겠는가?

양성시간에 내가 내놓은 것은 누이이며 어머니인 땅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땅이 품고있는 것들 또한 모두 하느님에게 속한다는 점이다. (시편 24장 1절 참조) 만일 우리가 적절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이 두 다리로 걷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이며 어머니인 땅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둥근 공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모두들 이 지구인 공을 손 안에 꼬옥 잡으라고 제안 했다. 누나이며 어머니신 땅을 우리 손 위에 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땅을 보살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자녀이며 청지기인 우리의 지구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지금 여기서 말 하고 있는 사회정의란 사회안에 있는 이들,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필수품들을 충분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서 온 누구든지간에,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과 휴식, 건강의 보살핌, 사회문제에서, 질병에서, 노동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 미망인들, 고령자들, 그리고 실업자들이 인간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Pacem in terries, 11; Gaudium et Spes, 26)

**자선사업이란 즉각적인 행동을 말 한다. 그것은 하느님과 이웃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직접적인 너그러움 혹은 애타심에서 우리나라와야 하는 행위이다.**

우리의 양성시간은 우리가 두 발로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에 대한 그룹토론도 포함하고 있었다. 토론자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온 프란치스칸 수녀인, Marie Lucey, 필라델피아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정규 3회원인, Kevin Queally, 그리고 St. Elizabeth of Hungary 지구에서 온 재속회원인, Joe Makley이 포함되어 있었다. 엄격히 선발된 이 세 사람은 프란치스칸으로서 두 발로 걷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활과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었다.

토론에 주어진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것도 이었다. ‘프란치스칸들은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프란치스칸 모두는 정치싸움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가설도 있었다. 하지만, 교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이 주신 인간생명과 진취력의 표상으로, 개인적이든 단체적인 방법으로 정의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 특별히 공적 삶의 분야에서는, 신앙에 걸 맞는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웹스터 사전에도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을 이렇게 풀이하고있다: 시민불복종이란 정부의 요구나 명령에 복종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시민이 비폭력적이며 집단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룹토론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도 이 정의에 동감했으며, 특별히, 토론에서 강조한 기도와 분별력을 동원하여 시작하는 비폭력적 행동에 대하여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밀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한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적 행동으로 공동 선으로 향하는 변화의 길을 강조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 운동은 너도 나도 함께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양편 모두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참가자 모두가 상대방의 생각과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우리가 공익사업에 접하면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은 프란치스칸이며 신앙인들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가톨릭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우리의 실천약속은 영적 삶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힘차게 뻗어 나가야한다. 하느님과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USCCB Catholic social teaching: 도전과 방향 에서

Kathleen Carsten, OFS 에게 2018년도 정의, 평화, 성실 창조상을 전하게 된 것은 나의 기쁨이며 영광이다. Kathleen은 Divine Mercy 지구 형제회 소속이며 남편인 우리의 Ecumenical/Interfaith 위원회 의장인, Michael Carsten, OFS와 함께, Michigan주에서 살고 있다.

Kathleen은 감명 깊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녀는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노인문제와 주택문제에 봉사하고 있는 한 본당의 간호사이다. 관심있는 여러분도 그녀의 삶에 관한 대답을 전국 웹사이트인 <https://secularfranciscanusa.org/2018-national-chapter>에서 볼 수 있다. 이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는 페이지 밑 부분을 검색해야 한다.

JPIC 양성의 추억을 좀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전국 웹사이트에 올린 Bob Stronach의 멋진 사진들을 꼭 보아야 할 것이다. Bob의 사진첩은 비디오 바로 밑에 있으며, JPIC 양성은 셋째 날에 있다.